

# 군산 1호 희망태양광발전소 본격 가동

### 코스텍에서 준공 기념식 지역경제 활성화 '시동' 향후 20개사 참가 사업 완료시 8MW 에너지 확보

정부의 에너지 2030 비전과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군산지역 내 입주기업들을 위한 군산희망태양광발전소 1호가 준공해 경제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8일 성과공유형 태양광발전설비 참여기업인 (주)코스텍에서 열린 준공식 행사에는 한국서부발전, 군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군산 태양광 희망발전소 1호 준공을 축하했다.

또한 지역 내 입주 중소기업 20개사가 참여해 군산경제 회복의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첫걸음을 함께 했다.

군산희망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참여와 함께 발전소 소재 지역으로서 자동차, 조선기자재 연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코자 서부발전, 군산시, 중진공이 뜻을 모아 추진된 사업이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급격히 기울어진 군산지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된 이번 사업에는 총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희망발전소 1호(300kW)를 시작으로 5월 중 4개의 발전소(총 3,068kW)가 추가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향후 총 20개사가 참가한 이번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약 8MW의 신재생에너지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군산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실



지난 8일 성과공유형 태양광발전설비 참여기업인 (주)코스텍에서 열린 준공식 행사에는 한국서부발전, 군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군산 태양광 희망발전소 1호 준공을 축하했다.

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국서부발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서부발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희망발전소 1호가 초석이 되어 침체된 군산지역경제와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최종 현장보고회 개최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주 개최도시인 익산시는 9일 메인스타디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체전 관련 부서장들과 읍·면·동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현장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14개 주요부서 최종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익산종합운동장과,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식이 열리는 익산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현을 시장은 "그동안 각 부서와 읍·면·동, 유관기관 등이 지속적인 보고회를 통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검토해 준비를 해온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기관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관람객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식이 진행되는 14일에는 오후 3시 30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6시 공식행사, 17시부터는 비와이, 청하의 축하공연과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 등이 펼쳐지며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주 개최도시인 익산을 중심으로 6개 시·군에서 16개 종목이 개최된다.

또한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은 개최식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주 개최도시인 익산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에서 36개 종목이 펼쳐진다.

/익산=장영원 기자

## "우리 목표는 종합 2위"

### 익산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 10일 개최

지난 2017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에 익산시 선수단이 출전한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도민체전은 시범종목 2개 종목을 포함한 38개 종목에 14개 시·군 25,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며 익산시는 패러글라이딩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에 88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친다.

지난 제54회 도민체전 종합 2위 달성의 쾌거를 이어가고자 올해도 종합 2위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한 익산시 선수단은 대회 출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이미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사전경기로 열린 정구와 야구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며 목표 달성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대회 첫 날인 10일 고창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개최식은 임

원을 포함한 익산시 선수단 100여명이 입장하며 입장식 이벤트로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 익산의 미래가치 제고를 주제로 한 모형기차와 대형 현수막을 활용하는 퍼레이드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 익산 전통 무형문화재 기세배 공연을 전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익산시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회 둘째 날인 11일, 정현을 익산시체육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 30여명과 이상춘 경제관광국장, 정기운 체육진흥과장 등 시청 직원들이 고창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회기간 동안 14일부터 개최되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25일부터 개최되는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양대체전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4개 부문 동시 선정

### 익산시, 중앙·매일·서동시장 등 2016년에 이어 추가 선정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4개 부문 사업이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중앙·매일·서동시장은 2016년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으로 지난해까지 3년간 17억여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성과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에 연속 선정되면서 9억 2천만 원을 확보해 큰 변화가 기대된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매일·서동시장은 기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영현대화사업이 더해져 명품시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매일시장이 선정되어 2억 원을 확보했다.

서동시장은 주차장 개보수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금마·남부·합일·

황동시장 화재일립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7개 전통시장에 총 32억 원의 사업비 중 1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과 대형마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생활SOC 사업발굴

군산시가 생활SOC 정부 추진방향에 맞추어 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발굴에 나섰다.

시는 시설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복합화를 위해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6가지 복합화 모델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한 복합화 모델사업은 ▲수송동 일원의 생활문화센터와 주차타워를 복합화하고 의벽을 미세먼지 녹화벽으로 조성하는 사업 ▲원도심에 K-POP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가족센터·여성인권센터·다함께돌봄센터가 어우러진 복합시설 ▲농업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농민을 위한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신규조성 등이다.

시는 발굴한 사업에 대해 27개 부서별 복합화 방안검토 회의로 실행방안을 관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인성 지차행정국장은 "시 실정에 맞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은 지역 내 문화생활 소외지역과 외곽도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10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는 박철웅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 및 교수, 아동기관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되는 첫 정기회의에서는 그동안 익산시가 추진했던 사업 현황 보고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준비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된다.

박철웅 부시장은 "이번 위촉식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익산의 본격적인 조성이 기대된다"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한 익산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남중동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위촉장 전달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재경, 표형덕)는 9일 복지사가 지대 없는 동네를 위해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위촉장을 전달했다.

남중동 행복지킴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장, 부녀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총 12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를 발굴, 신고,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복지킴이 위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구를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면 맞춤형복지계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익산시, 올해 말까지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 교체

###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산시가 9일 노사발전재단과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건설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기술진단 용역결과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로도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비 23억 8,800만 원, 노후된 수도관 L=16.0km 정도를 오는 12월까지 교체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남중동, 마동, 용제동, 석암동 일부 지역에 안정적인 수압으로 깨끗하고 맑은 수도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군산시-노사발전재단, 상생형 일자리 지원 협약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미심 광주지방노동운동장 군산지청장 등 노사민정 유관기관 및 건설팀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건설지원 사업은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자치단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 지원사업에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신청해 서류 및 면접심사결과 군산시를 비롯한 7곳이 선정됐으며, 시는 컨설팅 지원비 1억 3천만원만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컨소시엄 기관인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역 고용실태, 산업

구조 등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주체 간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하는 노사민정 역할과 참여 등 파트너십을 다져 나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실행 방안을 구체화 하 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군산시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지역일자리 모델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고민이 깊은 시기에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